

현대패션에 나타난 언캐니 이미지의 표현방법

유 아 립 · 서 승 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Expressive Methods of Uncanny Image in Contemporary Fashion

Arim Yu · Seunghee Suh⁺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ceived date: 2015. 7. 10, revised date: 2015. 7. 24, accepted date: 2015. 7. 2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xpression methods of uncanny images shown in contemporary fashion through the visual expression methods of plastic ar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re is a concept-forming element of 'The return of Repressed', which is a psychological mechanism for generating uncanny sets to the component of 'repression' and 'return'. 'Repression' herein consisted of 'unconsciousness', 'the other', and 'anxiety', while the return was composed of 'trauma' and 'repetition compulsion'. Second, there are visual expression methods of the uncanny in contemporary art. The subject of 'repressed things' was expressed as grotesque and having a terrible look. 'Fragmented body' was analyzed as 'dismantling' by mutilation, 'combination' placing cut body parts in other places, and 'damage' suffering from an illness or accident. 'Fear of death' was shown as 'anatomy' reminiscent of death and 'iconography of death' meaning return of the dead. 'Post-human' was a surrealistic being such as a monster and mechanized human, and was analyzed as 'gene variation' and 'cyborg'. Third, the methods of visual expression of the uncanny reflected on contemporary fashion was analyzed as 'fragmented body', 'fear of death', and 'post-human'. 'Fragmented body' appeared as the object reminiscent of the fragmented body, 'dismantling and combination of the body', and 'damage of the body' through the distortion of the clothing construction principle. 'Fear of death' visualized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the subject reminiscent of death as 'iconography of death' and 'symbolic object of death' through the motif. 'Post-human' was the description of the subject beyond the body's function and form, and was shown as 'gene variation' and 'cyborg'.

Key words: contemporary art(컨템퍼러리 아트), contemporary fashion(현대패션),
sigmund freud(프로이트), the return of repressed(억압된 것의 회귀), uncanny(언캐니)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Corresponding author: Seunghee Suh, e-mail: shsuh@skku.edu

I. 서론

현대의 패션 디자이너들은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이념을 투영시키고 때로는 전통적인 미의 기준을 해체시키면서, 그 어느 때 보다 도발적이고 신경증적으로 패션을 표현하고 있다. 해골 같은 인간의 사후 모습이나 실존하지 않는 괴기스러운 존재, 생명공학에 의한 돌연변이처럼 이전 시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둡고 퇴폐적인 표현들이 현대 패션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기말부터 급변한 문화적인 흐름에 따라 억압과 통제의 틀이 파괴되었고, 이상적 구조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사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Yu, 2007).

새로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에 반하여 2001년 뉴욕의 9·11 테러와 2008년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파산과 같은 불안정하고 무거운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사회의 다방면에서 공포와 불안감이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과거에 금기된 영역의 가치가 재조명 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미술에서 부각된 죽음과 공포를 연상시키는 '몸의 파편화'를 헬레인 포스너(Helaine Posner)는 폭력과 억압, 사회적 불신,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정의하였다(Robertson, 2011).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언캐니(Uncanny)라고 하는데, 언캐니에 대한 논의는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개념정립을 시작으로(Gwon, 1996), 자크 라캉(Jacques Lacan)과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에 의해 정신분석학으로 발전하였으며, 할 포스터(Hal Foster)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 등이 본격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최근 언캐니 개념이 사회 다방면에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패션에서는 연구의 범위가 현대 미술에 표현된 복식으로 제한적이거나(Im, 2009), 언캐니를 그로테스크한 패션의 세부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여(Kim, 2009), 언캐니 패션에 대한 연구는 한정적이다. 본 연구는 언캐니의 개념과 미학이 투영되어 나타난 컨템퍼러리 아트(Contemporary Art)의 시각적 표현방법 분석을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언캐니 이미지의 표현방법

을 규명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언캐니 패션의 개념이 패션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데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는 정신분석학과 언캐니 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례연구는 예술, 문화관련 웹사이트, 디자인연구소의 웹사이트와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범위로 문헌연구의 전반적인 틀은 언캐니의 정신분석학적 개념을 정립한 프로이트를 중심으로 전개하였으며, 라캉과 크리스테바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는, 언캐니의 확장개념인 실재계(Real)를 창안한 라캉과 언캐니의 시각적 산물인 아브젝트(Abject)를 정립한 크리스테바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례연구의 범위는 2002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의 작품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미디어비평가 토드 보이드(Todd Boyd)가 2002년 이후의 문화를 2001년의 9·11 테러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드러난 시점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Ok,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컨템퍼러리 아트와 현대패션작품의 언캐니 현상 연구를 위한 적합한 시점으로 판단되었다.

패션작품 사례분석은 Firstview korea, Dazed & Confused Magazine, 패션디자이너의 웹사이트 등에 근거하였다. Firstview korea는 패션 컬렉션 자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Dazed & Confused Magazine은 아방가르드한 패션작품을 다루는 실험적인 대표 잡지로 언캐니한 패션작품을 다수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컨템퍼러리 아트의 사례는 회화, 조각, 사진으로 한정하여 조사되었는데, 이들 장르가 언캐니한 시각적 표현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언캐니의 개념

언캐니란 대상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가 아닌 주체의 심리적 촉발에 근간해서 느끼는

감정으로, 사전적 의미는 두렵고 낯선 감정의 '기이한 느낌'을 뜻한다(Yu, 2007). 철학영역에서 언캐니는 형이상학적인 동시에 실존주의(Existentialisme)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는데, 하이데거(Heidegger)는 『존재와 시간』(1927)에서 언캐니를 불안으로 상징하고 지적인 불확실성을 언캐니의 대표적 기분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형이상적인 접근과는 달리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미학화하기 위해 언캐니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미학이 아름다운 대상만을 연구하여왔음에 주목하고, 두려움과 혐오의 주제인 언캐니도 미학의 한 분야로써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아함에 한정된 미학을 넘어서 자극이나 기괴함, 공포, 혐오가 어떻게 예술의 쾌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언캐니를 '억압된 것이 회귀'할 때 느끼는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정의하였다(Thurschwell, 2010). 즉, 언캐니란 '원래는 익숙했던 현상이 억압에 의해서 낯선 것이 되어 있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며, 억압이라는 무의식적 작용에 의해 의식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고통스럽고 불쾌한 것이 반복적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말한다(Yu, 2007). 프로이트는 언캐니를 환기시키는 대상으로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선, 인간과 비인간의 혼돈상태와 실명과 거세 같은 신체적 훼손으로 지적하면서 죽음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언캐니가 상기된다고 하였다(Freud, 2012). 따라서 언캐니는 죽음을 연상시키거나 과거 트라우마의 장면 그리고 섬뜩한 느낌을 주는 낯선 존재를 통해 환기하게 된다(Jin, 2011).

언캐니를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만든 이론가는 프로이트이지만 언캐니를 확장된 개념으로 재정의하여 확산시킨 이는 라캉으로, 언캐니와 동일한 개념인 오브제 a(Objet petit a)를 정립하였다(Yu, 2007). 라캉에 따르면 주체가 상상계(Imaginary)로부터 상징계(Symbolic)로 옮겨가는 시기에 억압과 공포의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Yu, 2007). 하지만 주체가 안전하게 상징계로 진입하면 일상적으로 공포를 느끼지 않지만, 상징계의 공간에서 이탈해 예전의 경험하였던 억압과 공포가 나타나면 언캐니가 드러나는 장소인 실재계를 경험하게 된다(Yu, 2007). 여기서 언캐

니는 실재계 속의 오브제 a에 해당하게 된다.

크리스테바는 라캉과 마찬가지로 언캐니에 관한 프로이트의 견해를 토대로 언캐니가 시각적 산물로서 귀환하는 이론을 창안하였다. 아브젝시옹(Abjec-tion)은 혐오스러운 실재에 대한 경험으로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거부하고 추방하는 심리적 현상을 이르는데, 이 과정에서 버려지고 경계 밖으로 밀려난 것들이 아브젝트이다(Yu, 2007). 즉, 아브젝시옹에 의해 밀려난 대상들은 아브젝트가 되며, 혐오와 공포가 가져다주는 매혹적인 위력을 가진 역겨움의 대상이 된다(Yu, 2007).

정리해보면 언캐니는 '억압된 것의 회귀'로써 친숙했던 것이 낯설게 나타나 불안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가 아닌 주체의 심리적 촉발에 근간해서 느끼는 감정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프로이트, 라캉, 크리스테바의 개념을 통해 언캐니는 '두려운 낯설음', '오브제 a', '아브젝트'와 같은 억압된 것이 경계를 침범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작용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2. 언캐니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프로이트의 언캐니 개념인 '억압된 것의 회귀'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언캐니의 구성요소를 '억압'과 '회귀'로 정리하였다. 언캐니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억압'은 무의식에 간혀있는 고통스럽고 불쾌한 관념과 기억을 가두려는 작용을 의미한다(Lee, 2006). '억압'은 무의식, 타자, 불안과 같은 3가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무의식'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 않는 정신의 내용과 억압된 것들이 간혀있는 장소로 각성되지 않은 심리적 상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Freud, 2012). '타자'는 친근했던 것이 낯설어지고 두려움을 주는 대상으로 변질된 것 또는 억압된 특정한 대상과 상황을 의미한다(Lee, 2006). '불안'은 안도감이 상실된 심리적 상태로, 무의식적인 위협에 관련되며 타자에 의해 유발되는 심리상태이다(Lee, 2006).

언캐니의 두 번째 구성요소인 '회귀'는 트라우마와 반복강박으로 구성되는데, '트라우마'는 억압된 것의

회귀를 표면적인 형태로 보여주는 신경증 증상으로 정신분석적 맥락에서 '정신적 상처와 흔적'을 의미한다(Lee, 2006). 심리학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라고 하며, 충격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정신장애를 겪는 현상을 말한다(Jeong, 2013). 결과적으로 트라우마는 억압된 것과 동일시될 수 있는데, 트라우마가 된 기억만이 무의식으로 억압되기 때문이다. '반복 강박'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런 과거 상황을 반복하고자 하는 강박적인 충동을 의미한다(Lee, 2006). 억압된 트라우마는 무의식적으로 꿈이나 말실수 같은 형태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불쾌한 경험이 된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심리장치의 체계에서 불쾌한 것은 다른 체계에서는 쾌락일 수도 있음을, 그의 18개월 된 손자가 실패에 매달린 끈을 가지고 만들어낸 '포르트-다'(fort-da)놀이를 통해서 발견하였다(Jo, 2014). 아이는 어머니와의 분리를 경험할 때 불안함을 느끼는데, 이를 수동적으로 견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즉, 어머니를 상징하는 실패를 던지고 당기는 놀이를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쾌락으로 바꾸기를 반복하였다. 이는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다른 종류의 쾌락을 간직하기 때문에 반복강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Thurschwell, 2010).

Ⅲ. 언캐니의 시각적 표현방법

프로이트는 언캐니를 환기시키는 대상으로 훼손된 신체와 해골같이 죽음을 연상시키는 대상과 섬뜩한 느낌을 주는 낯선 존재를 예로 들었다(Freud, 2012). 라캉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을 발전시켜 거울단계와 연관된 '파편화된 몸'(Fragmented body)의 개념을 정립하였는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는 거울에 반사된 자신의 인체를 조각난 것들의 통합으로 보고 자신의 몸이 조각난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Kim, 2010). 그리고 거울에 비친 영상과 파편화된 자신의 몸을 동일시하면서 불안함을 느끼는데, 이러한 파편화된 신체가 관절의 탈구나 사지절단, 내장적

출, 몸을 파멸시키는 이미지들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은 이상적이고 온전할 때는 친숙한 존재이지만, 왜곡되고 파편화되면 낯설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캐니의 시각적 표현방법 분석으로 몸을 대상으로 작업한 컨템퍼러리 아트에 회화, 사진, 오브제 등의 조형예술로 한정하였다. 시각적 표현방법의 분류 기준은 정신분석학에서 억압된 존재를 환기시키는 요소로 나타난 훼손된 몸, 죽음을 연상시키는 대상, 낯선 존재로 상징하고, '파편화된 몸', '죽음의 공포', '포스트 휴먼'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미지의 분류에 따라 언캐니의 시각적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1. 파편화된 몸(Fragmented Body)

몸은 자신을 이루는 실체로 온전하였을 때는 친밀하지만 왜곡되고 상처받은 몸은 언캐니한 감정을 일으키는 두려운 존재로 변질된다. 파편화된 몸이 끔찍하고 두려운 이유는 죽음의 충동 내지 공포를 환기시키는 파멸의 이미지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러한 불완전하고 훼손된 몸은 은폐와 혐오의 대상이었지만 현대 미술에서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시키는 매개체로서 해체된 몸이나 불완전한 신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컨템퍼러리 아트에서 나타난 파편화된 몸을 언캐니한 이미지로 상징하고 '해체', '결합', '훼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몸의 '해체'는 신체를 왜곡하거나 일부를 절단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불안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작용을 한다(Yu, 2007). 최수양의 작품 <Fig. 1>은 멀리서 보면 천장에 매달린 니케(nike)의 상징인 새의 깃털과 닮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단된 손들이 튀어와 있다. 그리고 절단된 손들이 역동적으로 매달리고 있어, 몸에서 해체된 신체가 다른 삶으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준다. 한스 벨머(Hans Beller)의 작품 <Fig. 2>는 토막 난 신체의 이미지 작품으로, 인형의 몸을 훼손하여 가학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인형을 통해 주체성이 사라진 난 이후의 시체이자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환영을 나타내었다(Foster, 2007).

몸의 '결합'은 분절된 신체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

놓지 않고 전혀 다른 위치에 재조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개체를 의미한다. 폴 매카시(Paul Mccarthy)가 팔과 목이 절단하여 표현한 작품 <Fig. 3>의 불완전한 신체는 이상적인 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시키는 기괴한 형상이다. 채프먼 형제(Jake and Dinos Chapman)는 전쟁, 대량학살, 죽음, 환경오염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몸의 절단, 집합의 방식을 통해 기괴한 형상으로 표현하는 작가로 하나의 몸체에 여러 개의 머리와 팔을 결합시켜 혐오스럽고 기이한 모양으로 결합을 표현하였다<Fig. 4>(Yu, 2007).

몸의 '훼손'은 물리적 상처를 작가의 몸을 통해 직접적으로 연출하거나, 기형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과의 작업을 통해 표현하였다. 고통 받고 상처 입은 몸의 재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자신의 몸과 훼손된 몸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조엘 피터 윌트킨(Joel Peter Witkin)은 사회에서 금지시키는 것들을 밝혀내고자 성전환자, 사지절단자들의 사람들과 초현실적인 장면을 구성하여 사진을

찍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장애를 입거나 훼손된 신체는 멸시의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며 기존의 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붕괴하고자 하였다(Parry, 2003). 작품 <Fig. 5>는 선천적 장애를 지닌 주인공과 함께 촬영한 것으로, 제우스의 화신인 아름다운 백조와 대비되는 기괴하게 뒤틀린 신체를 통하여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타자에 대한 폭력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Yu, 2007). 키키 스미스(Kiki Smith)는 피와 배설물을 흘리며 신체작용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물이나 훼손된 신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하는데, 작품 <Fig. 6>은 등을 칼로 깊게 베여 상처 입은 몸을 재현하였다. 행위예술가 스텔락(Stelarc)은 피부에 구멍을 내고 케이블로 구조물에 연결하여 중력에 저항하며 늘어진 피부로 체중을 버티는 기이하고 끔찍한 장면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Fig. 7>.

2. 죽음의 공포(Fear of death)

오래전부터 죽음은 경험과 재현이 불가능한 대상



<Fig. 1> The Wing.
Xooang Choi, 2009.
(daljin, n.d.)



<Fig. 2> Dolls.
Hans Beller, 1936.
(sniffcode, n.d)



<Fig. 3> Mutant.
Paul McCarthy, 1994.
(Robertson, 2011, p.119)



<Fig. 4> Two Faced Cunt.
Jake and Dinos Chapman,
1996.
(jakeanddinoschapman, n.d)



<Fig. 5> Reda.
Joel-Peter Witkin, 1986.
(Parry, 2003, p. 47)



<Fig. 6> untitled.
Kiki Smith, 1992.
(treccani.it, n.d)



<Fig. 7> Event for multiple
suspensions, Stelarc, 2012.
(stelarc, n.d.-a)

으로 공포의 상징이었다. 과학과 의학기술의 발달은 두려운 존재들의 정체를 밝혀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정체를 밝히지 못하여 여전히 모호한 공포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죽음과 관련된 상실과 애도의 표현이 현대미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체, 해골, 좀비, 망령 등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것들과 은폐되어 있었던 것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언캐니를 환기시키는 요소인 죽음을 통해 ‘해부학’과 ‘죽음의 도상’을 도출하고, 시각적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죽음은 ‘해부학’과 깊은 관계를 갖는다(Yu, 2007). 중세사회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죽음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하였고, 르네상스를 지나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죽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자하였다(Oh, 2013). 그래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체를 밝히려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해부학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생기게 되었다(Oh, 2013). 피부가 벗겨지고 내장이 꺼내진 시체와 해골은 죽음을 암시하는 언캐니한 대상이 된다. 의과대학의 해부학자들이 머리를 반으로 가른 시체를 빌려와 키스하는 장면으로 연출한 조엘 피터 위트킨의 작품 <Fig. 8>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Parry, 2003). ‘해골’은 시체가 부패하고 남은 뼈를 뜻하는 것으로, 죽음을 상징하는 표식이며 치아를 드러내고 활짝 웃는 모습은 죽음과는 이율배반적인 형상을 하고 있다. 가브리엘 오로즈코(Gabriel Orozco)의 작품 <Fig. 9>는 죽음을 직설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해 사람의 실제 두개골을 이용하여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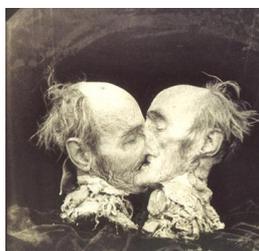
죽음의 도상의 시각적 표현방법은 망령의 모습으

로 움푹 들어간 눈과 앙상한 몸 등의 어두운 이미지를 통해 위협적으로 묘사되었다(Fig. 10). 제시카 해리슨(Jessica Harrison)은 인형들이 스스로 눈알을 꺼내거나 찢어진 복부로 내장을 보여주는 기괴한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 <Fig. 11>도 자신의 손으로 본인의 얼굴을 찢어내는 동작을 표현하여 끔찍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연출하였다.

3. 포스트휴먼(Post-Human)

포스트휴먼은 현실세계의 경계를 위협하는 피기스 럽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들로서, 인체의 순종성을 부정하며 다른 존재와의 혼성으로 융합된 완전되지 못한 인간의 몸을 가리킨다(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2013). 이러한 포스트휴먼은 인공지능을 지닌 기계와 유기체가 결합한 이미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제인간이나 동물의 장기와 결합된 인간 중심적 위계구조를 해체하는 모든 유기체를 포함한다(Ma, 2014). 이에, 본 절에서는 언캐니의 정신분석학적 환기요소인 섬뜩한 느낌의 낯선 존재를 포스트휴먼으로 상징하고 표현방법을 ‘유전자 변형’, ‘사이보그’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유전자 변형’은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다른 종과 혼합한 돌연변이, 인간과 동식물과의 이종교배, 환경오염에 의한 괴물과 같이 종과 종의 구분, 식물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다. 의학과 미술을 전공한 매튜바니는 신체의 물리적 한계와 남녀 성의 분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신체, 성, 정체성 등의 일반적인 개념을 초극해왔다(Kim, 2005). 그는 현실인



<Fig. 8> Kiss.
Joel-Peter Witkin, 1982.
(Parry, 2003, p.11)



<Fig. 9> Black Kites.
Gabriel Orozco, 1997.
(phaidon, n.d)



<Fig. 10> Cremaster 3.
Matthew Barney, 1995-2002.
(moviemartyr, n.d)



<Fig. 11> Roberta.
Jessica Harrison, 2014.
(jessicaharrison, n.d)

식의 출발점인 신체를 전복하고, 독특한 사적인 세계를 구축하여 작품 <Fig. 12>와 같은 유기체를 통하여 공포를 환기시키는 대상으로 표현하였다(Yu, 2007). 왜곡과 변형으로 틀에 박힌 기준에서 벗어나고자 한 작가 강영호의 작품 <Fig. 13>은 작가의 몸을 나무처럼 분장하고 식물의 특징적 요소로 표현하여 인간과 나무의 이중교배로 연출하였다(Lee, 2013).

'사이보그'는 우주여행에 적합한 복합체를 상정하면서 만들어낸 용어로 인간과 기계가 합성된 기계인간, 유기체와 비유기체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혼종을 의미한다(Kong, 2010). 신체와 기계의 잡종화에 대한 갈망은 인간이 지닌 유한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하는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전공학, 성형수술, 인공장기 등의 새로운 의학기술에 의해 자연적 신체와 인공성의 결합, 즉 가상의 신체인 사이보그의 탄생이 가능하게 되었다(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2013). 실험적인 포스트휴먼을 구현한 아티스트들은 사이보그를 또 다른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호기심을 유도하고 있다(Ma, 2014). 노진아는 인간과 같은 크기의 사이보그 전신을 통해 기계화된 인간과 인간을 지향하는 사이보그의 병치를 만듦으로서, 유기체로 구성된 인간 몸의 영역을 해체하고 인간을 질투하는 사이보그를 만들었다. '당신이 타이핑을 치면 나는 말하겠어요'라는 제목의 작품은 인간이 되고 싶은 사이보그의 감정을 표현하였으며, 감상자에게 작품을 통해 타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Fig. 14). 스틸락은 로봇의 팔을 달고 선보인 퍼포먼스 '제3의 손'을 시작으로

로 신체와 결합되는 로봇과 사이보그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는 기계에 의한 '신체의 연장'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사고와 행동이 가능하게 된다고 보고, 신체의 뇌파, 심전도, 근육의 신호, 혈액의 흐름 등을 감지기에 연결하여 빛의 깜박거림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하였다(Fig. 1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장에서의 분석을 종합하면, 컨템퍼러리 아트에 나타난 언캐니 이미지의 표현방법은 <Table. 1>과 같다. 첫째, '과편화된 몸'은 신체의 절단과 훼손에 의해 고통 받는 몸의 표현으로 지금까지 몸에 대해 품었던 환상과 경험의 틀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이성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신체의 일부분을 왜곡함으로써 그 결과 섬뜩하고 기괴한 신체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죽음의 공포'는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금기시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인체의 해부학적 표현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표식인 해골, 죽음의 도상인 망령과 사자(死者)를 시각화하여 언캐니한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셋째, '포스트휴먼'은 무의식적 상상력에 의한 낮은 존재로 위협적이거나 완전하지 못한 인간의 몸으로 표현되었다. 유전자 변이, 방사능, 환경오염 등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변이하고,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태어난 인간의 모습을 두려운 존재로 시각화하였다.

IV. 현대패션에 반영된



<Fig. 12> Cremaster 4.
Matthew Barney, 1995-2002.
(dryden Theatre, n.d)



<Fig. 13> The tree that trusts nobody.
Yungho Kang, 2009.
(younghokang, n.d)



<Fig. 14> You Type, I'll Talk.
Jinah Roh, 2003
(neolook, n.d)



<Fig. 15> Amplified body.
Stelarc, 1994
(stelarc, n.d-b)

<Table 1> Expressive Methods of Uncanny Image in Contemporary Art

Expressive Methods of Uncanny Image		Uncanny Image in Contemporary Art
Fragmented Body	Decomposition	An incomplete and damaged body is an object to be concealed and detested, which is expressed as the medium to overturn the fixed idea of ideal body in contemporary Art.
	Combination	
	Damage	
Fear of Death	Anatomy	As death is a symbol of fear that is impossible to be experienced and be reenacted, expression of loss and condolence related to death was expressed in those things that had been tabooed and concealed, e.g. corpse, skull, zombie, specter, etc.
	Iconography of Death	
Post-Human	Gene Variation	Post-human, which denies a original body, being grotesque or supernatural that threaten the boundary of real world forms incomplete human body. That mixture with other existence expresses a strange being with a weird feeling in contemporary art.
	Cyborg	

언캐니의 표현방법

언캐니 이미지의 패션은 자극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내면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미적 범주를 확장시키고 패션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와 끊임없는 호기심을 제공하고 있다. 즉, 언캐니를 통해 과거 고전적인 미나 우아함을 추구하던 전통적인 패션의 미의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며, 이상적인 복식의 미를 거부함으로써 새로운 언캐니의 미학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컨템퍼러리 아트에서의 언캐니 이미지 분석 틀을 근거로 현대패션에 반영된 언캐니 이미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1. 파편화 된 몸(Fragmented Body)

현대패션에 등장하는 파편화 된 몸의 이미지는 신체를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대체되어 표현되었다. 이는 시각적으로 모호하여 이상미를 해체시키고, 신체의 위치를 이동시킴으로 인해 충격과 새로움을 느끼게 한다. 파편화된 몸은 일상적인 아름다움이나 규칙들을 위반하여 언캐니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상적인 신체에서 볼 수 없는 요소들을 통해 불쾌하고 기괴한 이미지로 확장하게 된다. 패션에서 파편화된 몸의 이미지는 '몸의 파편화', '신체훼손'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났으며, 분리되고 훼손된 신체를 형상화한 패

션은 공포와 불안함을 환기시키는 요소로 폭력적인 현대 사회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내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몸의 해체와 결합의 표현으로 '몸의 파편화' 이미지 패션은 신체의 위치를 재조립하는 디자인 구상으로 의복 구성 논리에 역발상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신체는 원래 있어야 할 곳에 그 부위가 없으면 고통을 연상시켜 두려움을 환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그 자체만으로 불쾌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복됨을 보여준다. 절단된 신체를 상징하는 오브제를 엉뚱한 곳에 배치하는 아이템의 위치전환은 몸의 해체와 결합의 시각적 표현으로, 이상적인 인체의 미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시도이다. 호날도 프리카(Ronaldo Fraga)는 얼굴에 가발을 씌우고 뒷머리에는 마스크를 씌움으로서 의도적으로 정형화된 인체의 구조를 파편화시켰다(Fig. 16). 신체의 특정한 위치를 아이템의 조합으로 변경시키는 표현방법은 디자인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고, 그로테스크하고 전위적인 이미지를 연출한다. 작품 <Fig. 17>은 사지가 절단된 형태의 블랙의 3-D 원피스로 기형적 이미지로 연출되었다(Lee, 2014). 이 작품은 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Capriole' 컬렉션으로 도약하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특수한 감정을 반영하였다.

현대패션에서 '신체훼손' 표현방법은 신체기관과 피를 연상시키는 오브제를 사용하여 불쾌하고 잔인함을 강조하거나 폭력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



〈Fig. 16〉 2010 S/S
Ronaldo Fraga
(firstview, n.d.-a)



〈Fig. 17〉 2011 F/W
Iris van Herpen
(irisvanherpen, n.d.-a)



〈Fig. 18〉 2007 F/W
John Galliano
(firstviewkorea,
n.d.-a)



〈Fig. 19〉 war hero.
Richard Burbridge,
July 2010.
(dazed, n.d)

으로 나타났다. 몸의 훼손 이미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피는 의상의 재현으로 작용하였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피가 흐르는 유혈적인 모습을 연출하여 인체의 연약함을 상기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었다(Fig. 18)(Bonnie, 2011). 리처드 버브리지(Richard Burbridge)의 작품 'War Hero'는 붉은 털실로 표현한 상처와 니트에 묻어있는 붉은 컬러의 물감을 통해 훼손된 신체를 표현하여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전달하였다(Fig. 19).

2. 죽음의 공포(Fear of Death)

죽음을 나타내는 현대패션은 해골과 시체 같은 사후의 모습이나 관, 십자가와 같은 죽음을 상징하는 오브제를 통해 공포를 표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죽음의 공포에 대한 현대패션에서의 표현방법으로 '죽음의 도상'과 '죽음의 상징적 오브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죽음의 도상'은 죽은 자의 망령을 재현함으로써 불길한 장면을 연출하였다. 톰 브라운(Thom Browne)의 작품 〈Fig. 20〉은 부패하고 남은 인간 뼈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흰색의 원피스에 검은색의 디테일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죽은 자가 귀환한 이미지가 구현되었고, 죽음을 표현하기 위한 바디페인팅과 메이크업은 공포를 상징하는 모티브로 작용하였다. 이리스 반 헤르펜은 인간의 골격을 3D 프린팅 기법으로 선보였는데, 흑인 모델의 검은 피부와 대조적인 흰색의 골격은 부패되고 남은 인간의 뼈가 연상되도록 하였다(Fig. 21).

'죽음의 상징적 오브제' 이미지의 패션은 죽음을



〈Fig. 20〉 2014 S/S
Thom Browne
(firstview, n.d.-b)



〈Fig. 21〉 2012 F/W
Iris van Herpen
(irisvanherpen, n.d.-b)



〈Fig. 22〉 2006 S/S
John Galliano
(firstview, n.d.-c)



〈Fig. 23〉 2014 F/W
Viktor & Rolf
(firstviewkorea, n.d.-b)

상기시키는 요소를 통해 연출되었다. 상복이나 관, 십자가와 같이 죽음에 관련된 디자인을 제시하거나, 무대를 장례식장이나 종교적인 분위기로 선보였다. <Fig. 22>는 존 갈리아노의 2006 S/S 작품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몽환적인 분위기로 표현되었다. 모델은 검붉은색의 가죽상의를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죽음의 상징이자 부활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착용하였다.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는 2014년 F/W 컬렉션에서 독이 묻은 사과를 먹고 죽어가는 백설공주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목에 두른 붉은색상의 스카프와 대조적인 화이트 색상의 원피스를 착용하고, 사과를 손에 들고 있음으로서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Fig. 23>.

3. 포스트휴먼(Post-Human)

현대패션에서 포스트휴먼의 이미지는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인간과 동식물의 이종교배, 유전자 조작에 의한 돌연변이, 사이보그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 섬뜩한 면보다는 환상적인 면을 강조하여 초현실주의와 미래지향적인 패션으로 나타났다. 본 절에서는 포스트휴먼의 현대패션을 ‘유전자 변형’과 ‘사이보그’의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유전자 변형’ 이미지는 신화나 동화 속에 있을 법한 도상들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거나, 초인적인 존재의 신비로운 이미지를 강조하여 표현하

였다. 돌연변이와 같은 신화적 도상들은 실루엣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바디페인팅을 통해 기괴하고 신비하게 연출되었다(Kim & Choi, 2011). 판타지한 퍼포먼스로 인정받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컬렉션에서 반인반수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Hywel, 2012). 작품 <Fig. 24>는 깃털을 이용해 만든 오브제를 통해 인간과 새의 이종교배 모습을 환상적이고 배타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맥퀸은 유전자 변형의 모습을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미지의 공간에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생명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Bonnie, 2011). 작품 <Fig. 25>는 촉수와 같은 혐오스러운 장치를 통해 현실에는 없는 돌연변이의 모습을 연출하였다.

극도로 발달된 과학과 문명의 이미지를 반영한 포스트휴먼의 ‘사이보그’적인 패션은 인간의 자연적인 몸을 초월한 신체기능의 강인함과 확장을 표현하는 초월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사이보그 패션은 인공보철물, 인공장기, 로봇 등의 인공성과 자연신체의 결합으로 가상의 신체인 포스트휴먼에 기계처럼 차가운 느낌의 패션을 덧입힌 것으로 구현되었다. 사이보그패션은 인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의복의 실루엣에서 신체의 기능을 확장하여 인간초월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가 하면 인간이 꿈꾸는 우성적 신체기능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리스 반 헤르펜은 가상의 인체를 재구성하여 미래적인 사이보그 이미지로 신체의 확장을 표현하였다<Fig. 26>. 메탈과 기계로 만들어진 패션은 강인한 이미지를 부여받는데, 가



<Fig. 24> 2009 F/W
Alexander McQueen
(firstviewkorea, n.d.-c)



<Fig. 25> 2006 F/W
Alexander McQueen
(firstviewkorea, n.d.-d)



<Fig. 26> 2012 F/W
Iris van Herpen
(irisvanherpen, n.d.-c)



<Fig. 27> 2009 F/W
Gareth Pugh
(firstviewkorea, n.d.-e)

레스 퓨(Gareth Pugh)는 원단에 인공적인 광택을 입힌 하이테크 소재를 이용해 사이보그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인공물과 같은 형상으로 표현하였으며, 날개와 같은 인공보철물과 기이한 형상의 복면을 사용하여 위협적인 사이보그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Fig. 27).

이상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언캐니 이미지의 표현방법에 대한 고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Table. 2). 첫째, 현대패션에서 '파편화된 몸'은 인체의 파편화와 왜곡된 신체 그리고 의상을 연상시키는 오브제, 의복구성 원리의 파괴, 신체의 과장과 축소, 폭력적인 소재 등을 사용하여 이상적인 복식미를 해체시키며 표현되었다. 둘째, 현대패션에서 '죽음의 도상'은 해부학적인 표현과 십자가, 관, 장례식장에 입는 의상, 블랙베일 등 죽음과 연관된 모티브가 주된 소재로 활용되었다. 셋째, '포스트휴먼'은 인체의 기능과 형태를 초월한 대상으로 동물적 모티브에 의한 반인반수, 초월적 존재의 도상, 사이보그의 이미지로 현대패션에서 기괴한 오브제, 이질적인 소재, 인체변형, 메탈소재 등의 표현방법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현대패션의 미적가치는 과거에 비하여 넓고 다양해지면서, 과거의 보편적인 미의 기준만으로는 이해

할 수 없다. 현대패션이 이상적이고 숭고의 미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하여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패션을 통해 언캐니와 같이 흥미로운 미적 쾌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캐니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컨템퍼러리 아트에 나타난 언캐니의 시각적 표현방법을 살펴본 후에 현대패션에 반영된 언캐니의 시각적 표현방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컨템퍼러리 아트에 나타난 언캐니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편화된 몸'은 해체와 결합, 기형을 통해 시각화된 것으로 분절된 신체, 현실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신체조합, 신체훼손을 통해 나타났다. 이는 자연적인 기능, 심미적 관점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몸에 대한 이상적인 판단의 틀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죽음의 공포'는 해부학적인 표현이나 해골, 죽음의 도상인 사자를 통해 나타났다. 금기시되고 실체가 없는 죽음을 사체를 통하여 제시하거나, 인간의 몸이 썩어서 나온 해골로 구현되었다. 셋째, '포스트휴먼'은 괴물, 반인반수, 기계화된 인간 등의 이상적인 몸의 경계를 벗어난 존재를 표현한 것으로 '유전자 변형', '사이보그'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표현의 제약이 자유로워진 컨템퍼러리 아트에서 언캐니를 환기시키는 작품들은 환상의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논리적인 사고의 기괴함

<Table 2> Expressive Methods of Uncanny Image in Contemporary Fashion

Expressive Methods of Uncanny Image		Uncanny Image in Contemporary Fashion
Fragmented Body	Fragmentation of Body	To violate universal beauty standards by effecting on shifting parts of a body with items that symbolize the parts, ideal beauty of dress is disassembled and expressed with shock and newness in contemporary fashion.
	Damage of Body	
Fear of Death	Iconography of Death	Contemporary fashion presenting death expresses fear with objets symbolizing figure after death with skull, corpse, or death with coffin and cross.
	Symbolic Objet of Death	
Post-Human	Gene Variation	In contemporary fashion, post-human image is expressed with the appearance of hybridization with animals or plants, or mutation through gene manipulation, and the appearance of cyborg. It appears in surrealist and futuristic fashion, which is emphasizing fantastic aspect rather than weird aspect by escaping from the universal consciousness that we have been having about human body.
	Cyborg	

과 공포를 촉발시키고 있다. 그 결과 충격적이면서 신비로운 이미지는 환상과 현실의 경계 속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언캐니 이미지의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과편화된 몸' 이미지 패션은 '몸의 해체와 결합', '몸의 훼손'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과편화된 신체를 연상시키는 오브제와 의복구성 원리의 왜곡, 신체의 과장과 은폐, 훼손된 신체를 연상시키는 피 등을 통하여 나타났다. 시각적 표현방법은 의복의 일반적 사용범주에서 벗어난 엉뚱한 배치, 현실적으로 부자연스러운 형태, 구성의 과편화, 균형의 부재, 통일성의 무시 등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죽음의 공포' 이미지 패션은 '죽음의 도상', '죽음의 상징적 오브제'로 구분되었다. 표현방법은 죽음을 연상시키는 대상의 특징적 요소를 모티브로 사용하였고, 창백한 메이크업과 얼굴의 은폐, 해골, 십자가, 구체관절인형 등을 통하여 죽음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셋째, '포스트휴먼' 이미지 패션은 인체의 기능과 형태를 초월한 대상의 묘사로 '유전자 변형', '사이보그'로 구분되었다. 표현방법은 동물적 모티브에 의한 반인반수, 메탈소재를 이용한 인체기능의 확장, 기괴한 오브제, 이질적인 소재, 기학적인 패턴, 비구조적인 형태, 인체의 축소, 생략, 과장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언캐니 이미지의 패션은 자극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인간내면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미적 범주를 확장시키고 패션에 새로운 디자인 요소와 호기심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 시대의 사회적 불안함을 부각시키고 인간내면에 억압을 표현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현대인이 받은 두려움을 치유하고자하는 심리적인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의 언캐니 패션은 시각적으로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흥미와 미적 쾌감을 유발시키는데, 이는 고전적인 아름다움에만 의존하려 했던 미적관념이 발상의 전환 속에 소외된 것, 끔찍한 것, 불쾌한 것도 패션의 미의식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언캐니한 시각적 표현방법 분석을 통해 언캐니 패션이 이 시대의 하나의 새로운 미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음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미를 둔다.

References

- Bonnie, E. (2011). *Fashion : the 50 most influential fashion designers of all time*. (J. E.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Misulmun.
- daljin (n.d). Retrieved from http://www.daljin.com/2004/_main/exhibition/monthly/monthly.detail.php?code=E46754
- dazed (n.d). Retrieved from <http://www.dazeddigital.com/fashion>
- dryden Theatre (n.d). Retrieved from <http://dryden.eastmanhouse.org/films/2010/07/cremaster-4-cremaster-5-and-de-lama-lamina/>
- Eco, U. (2008). *On Ugliness*. (E. S. Oh, Trans.). Paju, Republic of Korea: Openbooks.
-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2013). *Trans Humanities*. Seoul, Republic of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Firstview (n.d.-a). Retrieved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menu=1&clear=1>
- Firstview (n.d.-b). Retrieved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menu=1&clear=1>
- Firstview (n.d.-c). Retrieved from <http://firstview.com/collection.php?menu=1&clear=1>
- Firstviewkorea (n.d.-b).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Firstviewkorea (n.d.-a).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Firstviewkorea (n.d.-c).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Firstviewkorea (n.d.-d).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Firstviewkorea (n.d.-e). Retrieved from <http://www.firstviewkorea.com/Collection>
- Foster, H. (2007). *Compulsive beauty*. (Contemporary Art Research, Trans.). Paju, Republic of Korea: Art Books.
- Freud, S. (2012). *Vorlesungen zur Einfuhrung in die Psychoanalyse*. (G. H. Lee,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Yuk munsa.
- Gan, H. S. (2008). *A Study on the Cultural Traits of Collaboration in the Contemporary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Gwon, T. Y. (1996). The Uncanny of Freud and Tonni Morrison : A World Where a Solution is Another Problem. *The Journal of humanities*, 1(-), 108-109.
- Hywel, D. (2012). *Modern menswear*. (J. H. Park,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Re1984.
- Im, Y. D. (2009). *Uncanny of dress in contemporary a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irisvanherpen (n.d.-a). Retrieved from <http://www.irisvanherpen.com/haute-couture>
- irisvanherpen (n.d.-b). Retrieved from <http://www.irisvanherpen.com/haute-couture>
- irisvanherpen (n.d.-c). Retrieved from <http://www.irisvanherpen.com/haute-couture>
- jakeanddinoschapman (n.d). Retrieved from <http://jakeanddinoschapman.com/works/kylie/kylie-2/>
- Jeong, J. A. (2013). *Study on Trauma and Self Healing : focused on the works of Louise Bourgeo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eongnam, Republic of Korea.
- jessicaharrison (n.d). Retrieved from <http://www.jessicaharrison.co.uk/page10.htm>
- Jin, J. G. (2011). *Icon*. Seoul, Republic of Korea: cine21books.
- Jo, G. Y. (2014). *A study on the motif of automata in rallet work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Kim, D. O. & Choi, J. H. (2011). Transactions :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Fantastic Reflected on the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4), 396-407.
- Kim, D. O. (2009). *The Significance and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The Fantastic Reflected on the Contemporary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Republic of Korea.
- Kim, J. Y. (2005). *A study of expressive media of performance : centering around the artists by med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Kim, S. (2010). *Sigmund Freud & Jacques Lacan*. Paju, Republic of Korea: Gimmyoung.
- Kong, J. Y. (2010). *Analysis of Works on the Abject Body Image in Contemporary A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 Lee, C. J. (2006). *Dialogue with Freud*. Seoul, Republic of Korea: hakjisa.
- Lee, S. R. (2014). Study on Modern and Innovative Haute Couture Designer ris van Herpe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7(3).
- Lee, Y. S. (2013). *A Monster pictures*. Seoul, Republic of Korea: Ehbook.
- Ma, J. M. (2014). *Post-human and Postmodern subjects*. Seoul, Republic of Korea: Commbooks.
- Marsh, J. (2013). *History of fashion : new look to now*. (J. E.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Sigongart.
- moviemartyr (n.d). Retrieved from <http://www.moviemartyr.com/2002/cremaster3.htm>
- neolook (n.d). Retrieved from <http://www.neolook.net/archives/20040320a>
- Oh, S. M. (2013). *Fear of Finiteness : Representation of an Image which cannot be Represent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Republic of Korea: Ewha Womans University.
- Ok, H. Y. (2006, September 13). "The 911 terrorist attacks, along with the United States over." *cine21*. Retrieved December 2, 2014, from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41317
- Parry, E. (2003). *Joel-Peter Witkin*. (U. Y.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youlhwadang.
- phaidon (n.d). Retrieved from <http://uk.phaidon.com/agenda/art/articles/2011/march/07/damien-hirst-and-gabriel-orozco-two-conceptual-artists-create-two-very-different-skulls/>
- Robertson, J. (2011). *Themes of contemporary art : visual art after 1980*. (H. J. Moon, Trans.). Paju, Republic of Korea: doosungbooks.
- sniffcode (n.d). Retrieved from <http://www.sniffcode.com/bodylanguage/hansbellmer.html>
- stelarc (n.d.-a). Retrieved from <http://stelarc.org/?catID=20328>
- stelarc (n.d.-b). Retrieved from <http://stelarc.org/?catID=20291>
- Thurschwell, P. (2010). *Sigmund Freud*. (H. W. Gang,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lpbook.
- treccani.it (n.d). Retrieved from http://www.treccani.it/scuola/tesine/corpo_corpi/di_cori.html
- younghokang (n.d). Retrieved from <http://www.younghokang.com/99-variations>
- Yu, G. H. (2007). *Psychoanalytical study of aesthetics from the concept of the 'Uncanny': centering around post-body a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